

영산강 살리기 '급물살'

보상비 1,140억원 책정...내달부터 보상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1천140억원이 책정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18~19일에는 설계·시공 일괄(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공사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남도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대상은 모두 1천81만㎡로, 전체 보상비는 1천145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하천구역 내 경작지 보상 148억 원 ▲하천구역 내 사유지 보상 134억 원 ▲홍수조절지나 천변저류지에 새로 편입될 토지 보상 863억 원 등이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유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이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

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리고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진다.

밭이나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남도 등은 이달 말까지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보상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보 설치사업이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공사가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이달 안에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턴키로 발주할 사업을 골랐으며, 18~19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 공고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턴키가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중에서도 공사가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내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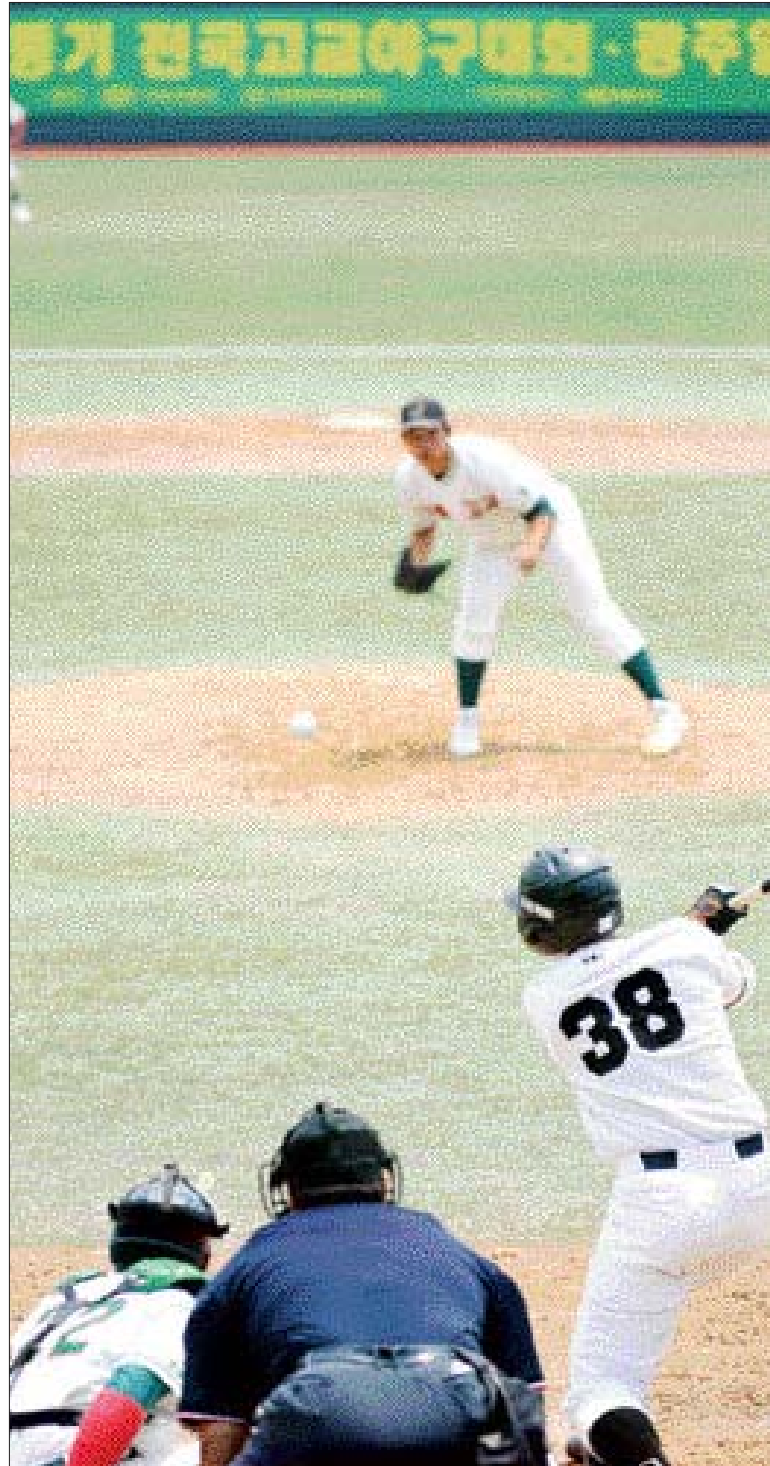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으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각종 보상비로 모두 2조8천억원에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상은 하천구역 내 토지 178km와 댐 또는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편입될 토지 등이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기 고교야구 열전 돌입

▶관련기사 18면



15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시작된 광주일보사 주최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 동성고와 강릉고가 첫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청원고 등 전국 20개 팀이 참가해 22일까지 8일 동안 패권을 다툰다.



2009년 7월 18일 (수) 오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0621220-0541, 1566-0766

“예멘 피랍 7명 사망”

한국여성도 포함된 듯

AFP통신 보도

지난 12일 예멘 북부 사다에서 피랍된 한국인 엄모(34·여)씨 등 9명 중 7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어린이 두 명만 산 채로 발견됐다고 예멘 보안관들이 AFP통신에 전했다.

한 지방 관리는 “납치된 사람들 중 7구의 시신을 찾았다”며 “두 명의 어린이만 산 채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AFP 보도로 본다면 엄씨는 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dpa 통신은 피랍자 중 독일인 3명이 숨졌다고 전했으며 로이터 통신도 3명의 여성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엄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예멘 수도 사나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다에서 실종됐다.

/연합뉴스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이달말께 최종 선정

광주·전남 자료 오늘 제출

광주·전남도가 공동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종 후보지가 이달말께 최종 선정된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선정 결과를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도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후보 도시 평가자료 마감 시일인 16일 광주·전남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평가 자료에는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입지여건을 부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광주·전남은 인구 1천명 당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수를 통틀어 후 종사자 수 전국 1위다. 또 입지 후보지로는 광주 광산구 진곡,고흥, 하남동을 아울러 조성될 진곡산단이 제시됐다.

또 총 5조6천억원 규모인 사업비 부분과 관련, 지자체 부담 2천952억원, 민자 3조3천586억원 등 시·도의 자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240명으로 임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가운데 평가위원 60명을 무작위로 뽑아 각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한 뒤 현장실사를 거쳐 이달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38년까지 30년간 5조6천억원을 투자해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3개 핵심시설을 건립·지원하는 것으로 생산 증가 효과가 82억원, 고용창출 효과가 3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책사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해당 패키지
취미/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0

이대통령 귀국후 국정쇄신책 마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보수 간의 이념논쟁이 심화되고 여야의 국정쇄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방문 이후 국정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사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17차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한 이런저런 걱정이 크신 줄로 안다”면서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미국 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언론에 투영된 의견이나 시중의 여론도 경청하고 있

다”며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잘 녹여내서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국정쇄신 요구에 대해 민심을 ‘경청’하면서 해법 마련을 위해 ‘속고’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미 직후, 인적쇄신 등을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념과 지역에 따른 분열,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정경 등을 주요 병폐로 언급하면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는 대중 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접에서 보다 폭 넓은 국정쇄신책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일정 정도의 인적쇄신 등을 통한 일반적인 화합형 국정쇄신책을 넘어 선거구제, 정치구조, 행정구역 개편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쇄신 특위는 국정쇄신 방안에 대해 16일 찬반 토론을 거쳐 잠정합의 수준의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쇄신헤위가 마련할 잠정안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진단과 민심이란 사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 프로그램, 당정, 청 인적쇄신 필요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